

마쓰노야마 온천의 효능

마쓰노야마 온천은 일본 3대 약탕 중 하나로 꼽히며, 14세기부터 그 효능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이 온천의 효능은 물에 포함된 다양한 고농도 미네랄 덕분입니다.

일본 법률에서는 19가지 미네랄 중 적어도 1가지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면 온천으로 인정됩니다. 마쓰노야마 온천의 수질은 8가지 성분의 기준치를 충족하며, 그 중에서도 항진균 및 항균작용이 있는 붕산의 함유량이 일본 최고 수준입니다. 또한 리튬, 스트론튬, 브롬, 요오드, 불소, 메타붕산, 메타규산과 같은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는데, 이는 피부병 치료에 높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이 온천은 고장성으로, 포함된 미네랄 농도가 체내 농도보다 높습니다. 그 때문에 삼투압의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유익한 미네랄이 피부를 통해 체내로 쉽게 흡수됩니다. 하지만 탈수작용도 있으므로 입욕자들에게는 충분한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.

대부분의 일본 온천이 지열로 데워진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, 마쓰노야마 온천의 원천은 약 1,200만 년 전 지각 변동으로 지하에 갇힌 해수로 채워져 있습니다.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부력을 느낄 수 있으며, 입욕 후에도 보온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는 도카마치의 추운 겨울철에 특히 좋은 효능입니다.